

8 르포

따뜻한 밥 한 공기 홍옥봉 할머니의 20년 하숙 이야기

김륜희 기자 poetry_5989@khu.ac.kr

캠퍼스 인근에서 20년 전만 해도 하숙은 인기있는 주거 형태였다. 하지만 원룸 붐이 일면서 점차 하숙생이 귀해지기 시작했다. 설상가상 코로나 19 상황이 벌어졌고 학생들은 공동으로 생활하는 하숙보다 원룸을 선호했다. 자연스럽게 운영이 어려워진 하숙집은 하나씩 사라졌다. 그래도 여전히 하숙집을 지키며 학생들에게 따뜻한 아침밥을 차려주는 사람들이 있다. 대학의 첫 시작을 하숙에서 시작한 기자가 우리학교 후문 이문동에 아직 남아있는 하숙의 생생한 현장을 담았다.

대학에 합격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부산에서 올라와 기숙사를 신청했다. 하지만 모종의 이유로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했다. 갈 곳을 잃었지만 자취방을 열른 알아봤다. 그마저도 다소 늦은 시기라 좋은 매물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았다. 그렇게 남아 있는 매물이라도 둘러보던 중 우연히 ‘하숙합니다’ 표지판이 보였다.

보증금 200에 월세 55만 원. 모든 수도, 가스, 전기, 인터넷이 포함된 관리비와 아침, 저녁밥이 포함된 가격이다. 월세가 50~70만 원에 식비는 따로 지출해야 하는 원룸보다 훨씬 저렴했다. 그렇게 어머니의 적극적 동의와 함께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 그렇게 하숙 라이프가 시작됐다.

객지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쓸쓸했다. 입학 초기라 모든 것이 새로웠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마음을 터놓을 사람도, 부모님도 없어

불안했다. 그때마다 위안이 됐던 것은 하숙집 할머니의 따뜻한 밥상이었다. 전날 과음을 하고 아침으로 콩나물국이 나올 때면 어머니 생각이 절로 났다. 그렇게 아침을 비우면 하숙집 할머니는 아침을 잘 먹는다고 좋아하셨다. 그리고 할머니는 “객지에서 내 새끼들이 밥을 거르고 다니는 게 부모들이 가장 슬퍼하는 거야. 학생은 밥 잘 먹어서 다행이네”라고 말했다.

콩나물국을 끓여주던 할머니는 하숙집을 운영하는 홍옥봉 할머니였다. 할머니는 23년째 하숙집을 운영하는 중이다. 직장에서 퇴직한 뒤 직장 동료가 자기 아이를 좀 봐달라는 말에 하숙을 시작했다.

할머니는 학생들이 맛있게 식사하는 모습을 보면 힘이 난다고 말한다. 특히 “먼 곳에서 와 하숙집을 찾은 학생들은 잘 먹어야 한다”며 굳이 제일 좋은 쌀을 사 오신다고 한다. 다른 식재료는 이경시장에서 사 오신다. 특히 닭은 재래시장에서 사야 신선하다고 한다.

아침밥 시간인 오전 8시에 맞춰 한 시간 전부터 밥을 안치고 국을 준비한다. 반찬은 시간이 여유로운 낮에 만든다. 낮에 일정이 있으면 새벽에 미리 반찬을 다 준비한다. 남은 시간에는 보통 TV를 본다. 요리 프로그램을 보며 새로운 요리를 개발하기도 한다.

봄채소는 주택 앞 텃밭에서 직접 기른다. 그리 큰 밭은 아니지만 갯잎부터 고추까지 직접 재배한다. 작은 밭이지만 봄채소를 기를 때는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홍옥봉 할머니의 따뜻한 밥 한 공기가 사회로의 첫 발걸음을 옮기는 학생들에게 온기를 전하고 있다.

(사진=김륜희 기자)



23년째 하숙집을 운영하고 있는 홍옥봉 할머니의 모습이다. 홍 할머니는 가장 자신있는 음식으로 '제육볶음'을 꼽았다. (사진=김륜희 기자)

잡초를 아침저녁 계속 뽑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자란 채소는 하숙생들의 반찬이 된다.

하루 종일 하숙생들을 위해 시간을 쓰는 것은 아니지만, 하숙생들의 식사부터 집 관리까지 하기 때문에 사실 1년 중 마음 놓고 어디에 갈 수도 없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며 쾌활하게 웃는 할머니의 모습에서 하숙생을 향한 사랑이 느껴졌다.

할머니는 5년 전 재수 끝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두 학생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한다. 시험에 합격한 소식을 들었을 때, 남의 자식이지만 내 집에서 한술밥을 먹은 학생이 합격했다는 사실에 내 자식

처럼 기뻐했다고 회고했다. 첫 시험에서 떨어져 마음이 흔들릴 때 한번 더 치면 잘될 것이라 격려했다. 시험 전날엔 특별히 대추차를 끓여줬다고 한다. 그리고 그 두 학생은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 그해 8월 두 학생이 꽃을 들고 하숙집에 인사하러 왔다고 한다. 그럴 때마다 할머니는 삶의 희열과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사실 인기 드라마였던 <응답하라 1994>의 하숙과 현재 하숙 형태는 꽤 다르다. 특히 달라진 점은 하숙생 간의 관계다. 할머니는 “20년 전 왕십리에 있던 시절에는 하숙생들끼리 아프면 약을 사줄

정도로 관계가 가까웠지만 지금은 하숙생 간 관계가 그 정도 같지는 않다”며 예전보다 하숙이 개인화됐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예전과 달리 한 자녀 가정이 대부분이라 그런지 같이 어울리는 것보다는 각자 독방을 쓰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것 같다”라며 덧붙였다.

원룸 열풍 속에서도 ‘하숙의 온기’는 이전과는 다른 형태로 지속되고 있었다. 물론 많은 하숙집이 사라져가는 실정이지만 객지에서 온 학생을 위한 갯지는 따뜻한 밥 한 공기. 그 온기가 차갑게 느껴질 수 있는 사회로의 첫 발걸음에 감동을 주고 있다.